

농구

6

2020년 1월 21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울스타 휴식기 마친 10개 구단, 순위경쟁은 지금부터!

1~5위 3경기차...역대급 후반기 플레이볼

공동 1위 SK-KGC 치고 나갈지 주목
두경민 합류 DB 전력강화 눈에 띄어
KCC, 팀워크 완성엔 가장 무서운 팀

발이고 있다. 정규리그 우승, 4강 플레이
오프(PO) 직행 등을 놓고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역대급' 선두 경쟁이 예상되
는 후반기, 프로농구는 더 흥미롭게 펼쳐
질 전망이다.

강한 압박 수비가 강점인 KGC는 체력
소모가 크다는 극단적인 단점을 안고 있
지만, 군복무를 마친 가드 이재도(29)와
슈터 전성현(29)의 가세로 가용인원이 많
아져 힘이 실렸다. 단, 최근 김승기 감독
(49)의 이른 경기 포기 논란과 구단 내부
적인 문제로 팀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점
이 마이너스다.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력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성과 폭발력, 극강의 수비력을 모두 갖췄
다. DB는 두경민이 합류한 이후 3경기에
서 모두 승리를 거뒀는데, 평균득점은 무
려 93.6점이다. 득실 마진도 +16에 이른
다. 당장의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강력한
우승후보다.

KCC는 이정현~이대성~송교창~
라건아로 이뤄진 국가대표 라인업의 시
너지 효과가 2달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선수 구성만 본다면 평균 80점은
우습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평균
77.8점(5위)으로 평범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팀워크 완성도를 높일 수만 있다
면 가장 무서운 팀임은 틀림이 없다. 울
스타 휴식기 이후 KCC의 행보를 주시
해봐야 한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울스타전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한
'2019~2020 현대모
비스 프로농구' 정규
리그는 21일 전주 KCC와 고양 오리온의
경기를 시작으로 후반기 레이스에 돌입
한다. 서울 SK와 안양 KGC가 21승12패
로 공동 1위에 올라있지만, 안심할 수 있
는 위치가 아니다. 공동 1위와 5위 전주
KCC(18승15패)의 승차가 3경기 밖에 되
지 않을 정도로 중상위권 팀들이 각축을

●그래도 안정적인 SK, 불안한 KGC
시즌 내내 선두권을 유지해 온 SK는
4라운드 초반 3연패에 빠져 어려움을 겪
기도 했지만 외곽슛이 살아나면서 경기
력을 되찾았다. 자밀 워니(26·200cm)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략이 상대 팀에게 분
석이 되면서 시즌 초반과 같은 위력을 발
휘하지 못한다고 해도 평균 득점 82.3점
(2위), 평균 실점 76.3점(3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공수 밸런스가 가장 안정적
인 팀인 것만은 틀림없다.

●지켜봐야 할 DB와 KCC
후반기 가장 주목할 팀은 DB와 KCC
다. DB는 군제대한 가드 두경민(29)의
합류로 약점으로 손꼽혔던 앞선 마저 강
해졌다. 두경민~허웅~윤호영~김종
규~치나누 오누이쿠(또는 칼럼 그란)라
는 매력적인 베스트5가 구축됐다. 안정

6강PO 노리는 삼성 대체용병 톰슨 영입



제임스 톰슨

서울 삼성이 외국인선
수 교체를 통해 전력 강화
를 모색한다.

삼성은 20일 "델로이
제임스를 대신할 외국인
선수로 제임스 톰슨을 영
입했다"고 발표했다.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
규리그에서 14승19패로 8위에 머물러 있
는 삼성은 외국인선수 교체로 울스타 휴식
기 이후 시작될 후반기에서 6강 플레이오
프(PO) 진출을 노려볼 계획이다.

톰슨(25)은 키 208cm·몸무게 109kg으
로 포스트 위주로 움직이는 스타일로 알려
져 있다. 2018~2019시즌까지 미국 대학
무대에서 활약하는 그는 최근 이탈리아
2부 리그 몬테그라나로에서 뛰었다. 18경
기에 출전해 평균 13.4점·9.9리바운드로
활약상은 나쁘지 않았다.

삼성 이상민 감독은 "제임스가 기량이
괜찮은 편이지만 플레이 스타일이 상대에
게 읽히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 외곽보다
끝밀 위주로 움직이는 선수를 영입해 리바
운드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
고 외국인선수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톰슨은 18일 입국해 삼성에 합류했다.
취업비자발급 등 행정적인 절차가 남았지
만 큰 문제가 없다면 삼성의 울스타 휴식
기 이후 첫 경기인 25일 서울 SK전부터 출
전할 전망이다.

최홍석 기자 gtyong@donga.com



'팀 허훈'에 속한 이정현(오른쪽)이 19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벌어진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
농구 울스타전'에서 '팀 김시래' 이관희의 수비를 제치고 있다. 울스타전도 실전처럼 뛰는 이정현은 5번
의 울스타전에 출전해 모두 승리수당을 챙겼다. 사진제공 | KBL

이정현 "울스타전 무패 비결? 리그처럼 뛰다" (KCC)

5시즌 연속 출전에 한번도 안 져
"분위기 많이 바뀌...더 즐겨야죠"

남자프로농구를 주관하고 있는 KBL은
2017~2018시즌부터 울스타전에서 울스
타 팬투표 1, 2위 선수가 드래프트 통해
자신의 팀을 구성하는 방식을 이어오고
있다.

19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울스
타전'에서는 허훈(부산 KT·울스타 팬투
표 1위)과 김시래(창원 LG·팬투표 2위)가
자신의 이름을 딴 '팀 허훈'과 '팀 김시래'
를 구성했다. 이에 앞서 둘은 드래프트를
통해 선수 구성을 했다.

허훈과 김시래가 가장 선발하고 싶었던
선수는 전주 KCC 이정현(33)이었다. 팬
투표 1위 자격으로 우선 지명권을 가졌던
허훈이 첫 번째로 이정현을 뽑았다. 후순
위로 밀린 김시래는 이정현을 뽑지 못한
것에 크게 아쉬워하기도 했다.

이처럼 선수들이 이정현을 뽑길 원하는
이유는 '울스타 무패'의 주인공이기 때문
이다. 이정현은 2015~2016시즌을 시작
으로 5시즌 연속 울스타전에 출전했는데,

그가 속한 팀은 매년 승리했다. 이번에도
이정현이 속했던 '팀 허훈'이 123-110으
로 '팀 김시래'에 승리를 거두면서 승리
수당(선수당 300만원)을 챙겼다. 이정현
은 20분19초를 뛰면서 11점·3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매번 울스타전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
까. 이정현은 "울스타전을 정규리그 경기
처럼 열심히 뛰다. 그게 비결이다"라고 말
했다. 이어 "내가 덩크슛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날 울스타로 뽑아준 팬들에
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실전처럼 열심히
뛰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동료들도 같이
열심히 뛰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계속 이
기는 것 같다. 나 정말 열심히 뛰지 않았
는가"라며 웃었다.

이정현은 "내가 처음 울스타에 뽑힐 때
만해도 솔직히 즐기는 분위기는 아니었
다. 지금은 젊은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면
서 경기 자체를 즐기려고 한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선수들이 즐겁고 열심히
뛰는 만큼, 팬들에게도 즐거운 울스타전
이 되지 않았나 싶다. 앞으로도 울스타로
뽑아주신다면 늘 그랬듯이 즐겁고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희소식 무릎이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분~

▶ 며칠 차고있어 보니 부드럽고 시원해서 좋구나!
▶ 무릎이 편하면 만사가 즐겁고 행복하다!

휴대용 무릅팍엔
무릅팍엔이 생각나~

명작 명품
제품명 무릅팍엔 · 제품 무게 100g
제조/판매원 솔윈 · 제조국 대한민국
· 사용방법: 불편한 무릎에 착용

착용해보니 그것참 신통하구나!
불편한 무릎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생체(生體)에너지 무릎밴드 함 무릅팍엔이 출시되어 무릎이 불편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천연광물질에서 다량의 파장이 방사 및 방출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무릅팍엔에는 4가지 광물질(젤라이트, 그라파이트, 철보석, 의료용 자석)이 침착되어 있으며 그중 그라파이트는 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 이상 팽창시킨 물질로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의 30배에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고가 신소재이다. 어둡고, 힘들고, 불편한 무릎에 착용하여 생활해보시면 시원하고 가벼워짐을 느낄 것이며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겹옷 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고 활동성이 좋아 누구나 일상생활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무릎이 편하면 코트레가 절로 나온다
불편한 무릎을 위하여~
상담문의: 무릅팍엔 1670-5467

평범하지 않은 중년을 위한 주름개선 미백크림 와~ 주름개선 정말 좋구나! 바로고 확인해보세요

주름이 없어야나이가어리게 보입니다. 나이보다 젊어보인다는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부러움의 시선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힘이 됩니다.

50-60대가 되면 예쁘다는 말보다 피부가 좋다. 나이에 비해 젊어보인다. 동양인이라는 말이 더 들기 좋습니다. 연예인들을 봐도 나이가 들어도 맑고 투명하고 주름없는 피부가 눈에 띄는데 돈이면 누구나 다 한다는 식으로 포기하고 막연히 부러워만 하십니까? 우선 나이가 어리보이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름이 없어야 하고 노화원인 주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주름의 수가 달라지고 보이는 나이가 바뀌게 됩니다. 최근 시남해인화형협동조합과 주이스제약과 공동연구개발한 장보고 항알크림은 항알나무 추출액을 함유한 주름개선, 피부미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이미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재구매로 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알갈주름은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가 나게 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탄력이 생겨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팽팽함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드립니다.

피부가 고약하면 캔시라 외출하고 싶어진다~
나이보다 젊어보고 싶으신 분들의 전용크림 고귀하신 분들을게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 시트: 장보고 항알크림 2개 + 항알미용어는 1개
· 판매원: 시남해인화형협동조합
· 용량: 70g/개
· 제조원: 주이스제약

남녀공용입니다
중년 남성에게도 너무 좋아요~

어떤 명품크림들과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피부가 고약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번더 쳐다보다 상담문의: 주름개선 항알크림 1600-2865

허리가 불편해 고생하시는 분~

▶ 허리건강 비밀은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 며칠 착용해보니 그것 참 좋구나!

전기가 필요없는 허리따따의 놀라운 성능

휴대용

제품명: 허리따따
제조/판매원: 솔윈
재원: 길이: 대, 중, 소
두께: 5mm/ 무게: 210g
제품상도: 불편한 허리에 착용
제품특징: 가볍고 반영구적 손발레 기능
제조국: Made in Korea

명작 명품

착용해보시고 확인하세요!
전기 없이 스스로 체온과의 열교환으로 발열되는 허리따따 발열밴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4가지 광물질(젤라이트, 그라파이트, 철보석, 의료자석 등) 중 그라파이트라는 신소재는 천연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이상 팽창시킨 물질이며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보다 30배,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물질이고 불편한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밝혀 줄 것이다. 또한 가볍기 때문에 겹옷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게 착용할 수 있어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허리가 편하면 만사가 편하다!
불편한 허리를 보호해주는~
상담문의: 허리따따1600-1047